

# 일상에서 선 실천할때



## 혜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선지서천위골수(禪旨西天爲骨髓)  
교당동토작생황(敎堂東土作生簧)  
최사현정귀황도(崔師顯正歸黃道)  
오엽일화계만방(五葉一花界萬邦)  
선(禪)이 가리키는 바는 서천(西天)에서 골수(骨髓) 법의 진리를 이루었습니다.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동쪽 나라의 생황(生簧)이 되어 중생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샅뿔을 부수고 바름을 세워 황금색 몸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께 돌아가면 다섯 잎사귀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만방에 만발할 것입니다.

### 머무는 바 없이 청정심 내라

인도 남천축국의 세 번째 왕자였던 달마선사가 선을 전하기 위해 동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후 6조 혜능에 이르러 선이 활짝 피었습니다.

선종은 조동종, 임제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 등 다섯 종파로 나뉘어 발전하였습니다. 참선하는 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다섯 종파의 가르침 속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잎사귀는 다섯종파를 말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선의 꽃이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선문 오종을 나누고, 정맥이나 수승하니 따지지만 본질적인 교의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각 종파의 역사와 본령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논증하고, 가품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선암사 부도전에 가면 '방축조계 일파청(放曹溪一派淸) 벽개남악 천봉수(劈開南岳 千峰秀)'라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암사는 도의 국사를 비롯해 태고보우 국사, 그리고 육조혜능(六祖 慧能) 스님의 제자인 남악회양과 법을 계승한 마조도일까지 선의 양대선맥이 둘 다 전해진 곳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막아놓았다가 한번에 터버리는 것처럼 원자계 조계선종의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선암사가 한국불교의 독특한 선종을 간직한 사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조 혜능 스님과 의인이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민세투에 육조조



11월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혜초 스님(태고종 중정)은 철저한 계행으로 불자들의 시표가 되고 있다. 중정 주석처인 선암사 무우전 앞마당에서 포항중인 혜초 스님.

태고종 제 16세 중정 혜초(慧草) 스님이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11월 30일. 길어가는 겨울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조계산에는 아직도 붉으스레한 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단풍도 마지막 남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혜초 스님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조계산 능선을 바라보며 "영산작법(영산,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 등 여러 가지 의식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 이름다운 모습이라고"라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혜초 스님은 이날 방장 취임 베퍼를 통해 "중도들이 방장직임을 부여한 현대에 불조명맥을 살려서 영원히 융성하게 하며 그 바탕에서 인류를 구제하라는 뜻으로 알고 책임을 완수하고자 진력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총림 방장추대식후 중정 주석처인 선암사 무우전(無憂殿)에서 혜초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청해 들었다.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2>



### 그린 아버지의 술 냄새

제 아버지는 꽤도 술을 즐겼습니다. "딱 한 잔만..." 이 말을 노상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사업하느라 호기 넘치게 술을 마셨고, 늙고마의 아버지는 삶이 버거워 술에 기대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언제나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완벽주의자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버지는 어찌된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어서부터 평생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 말고는 그 모든 설움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는지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힘들게도 하였습니.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에게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어도 몇몇 아이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정류장을 향했을 정도였습니다.

종종 밤늦어 정류장에 내렸을 때 눈은 별갈게 충혈되었고 입에서는 소주냄새를 풍출 풍기면서 "이제 오냐?"라며 반갑게 다가오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 무거운 책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만 한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손에 의해 술을 거두는 일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신문에서 접할 때마다 부러부러 경전들을 뒤져봅니다만 예석하게도 아버지께 관한 가르침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주는 가르침은 드문드문 보입니다만 남성, 그것도 '아버지'에게 주는 가르침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어보다보니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 아버지들이 분발할만한 모델이었습니다.

성불하신 뒤에 고향을 찾은 부처님은 여전히 사람으로 애타하는 아소다라를 따로 만나 그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동석하였지만 아소다라가 맡겨 그리움을 풀도록 자신을 맡겨준 그런 '지아비'였습니다. 가장 완전한 재산을 물려주려고 자신인 라훌라를 출가시킨 뒤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우뚝 서도록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신 '아버지'였습니다.

법화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로까지 격상됩니다. 법화경 속에서의 아버지

## 가장의 자리 못찾아 헤매는 이 시대 아버지들이여 소박한 사랑과 인간미로 가족에 다가서 보세요

가방을 받아서 어깨에 메고는 동요를 흥얼거리며 비틀비틀 앞장서서 집으로 향하였지요. 머리가 커진 자식이 속을 찌질 때는 어머니에게 책임을 추궁하였지 자식에게 직접 심한 꾸중을 하지는 않았습니. 삶이 점점 버거워지자 아버지의 술은 심해졌고 그 모습을 보듯못해 자식들이 거세게 대들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말리느라 더욱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럼 못쓴다. 네 아버지다."

지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참 나약하고 지친 한 남자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벽이나 든든한 기둥이거보다 아내와 자식에 대해 일정한 애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맘껏 물질을 충족시켜주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한 '남자'였습니다. 술이라는 지독하게 미운 방해꾼이 있었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언제나 어둔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며 가족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흥얼거린 가장이었습니다.

위엄있는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저에게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품게 해준 분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장을 숨지게한 사건이 신문에 실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 자식을 지키기 위

는 불이 난 집안에서 노느라 정신 팔려 있는 자식들 때문에 문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입니다. 피를 내어 자식들을 모두 끌어낸 뒤에는 너무나 고마워서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안겨주며 떠날 수 없이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뒤에는 견줄 수 없이 풀이오르는 부정(父情)을 죽는 순간까지 억누르고 숨겨가면서 자식을 번듯한 자기자리로 되돌려놓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릇된 삶을 사는 자식들에게 목이 쉬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이 죽었다고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일깨우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법화경에서 그러는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지러운 이유 중의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권위도 위엄도 중요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박한 사랑과 인간미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삶이 버거워 술에 취해 주장을 버려두 '우리 아버지'라며 따뜻하게 인어주고 받아주는 내 편이 있어야 술 마실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

■ 이미령(동국대경원역경위원)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속담용구 -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속담기 체험방 모집!

대박점은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때아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속담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활자리를 동시에 들릴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활자리를 모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속담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속담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제품의 특징

- 최후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최후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의료용구 제조등록번호: 제 0099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JC07019-3001  
살균인증등록: 제 0309642호  
살균인증등록: 제 0318970호  
살균인증등록: 제 0328993호  
의약품제조번호: 제 0344295호  
의약품제조번호: 제 0344295호의 유사 제1호  
ISO 9001 인증번호: 제 0117289호

대리점 및 속담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발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역복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회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종합 new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발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를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까지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물어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풍기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안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이 방장의 상징인 불자를 봉정받은후 대중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사(六朝古刹)라는 현판을 보면 선암사 가풍이 확연 해집니다. 육조(六祖) 혜능 대사가 살던 곳이라는 뜻에서 육조고사라 했다 합니다. 글씨는 서포 김만중의 아버지인 김익겸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없으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혜능 스님의 수행가풍을 따르려자 선암사는 기둥에 주련(住聯)을 달지 않습니다.

혜능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스님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 시냇가에 팔아서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奉養)하고 지낸 입자무식(一字無識)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혜능 스님은 나무를 팔고 집으로 가다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라는 구절을 듣고 크게 발심했습니다.

선종(禪宗)과 깊은 관계를 갖게된 바로 이 구절이 선의 진정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구절(句向)은

풀어서 설명하면 ‘아무조건 없이 증생을 구제해 주고 보살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대상이나 나의 존재 어디에도 내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면 새로운 실천행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선의 진정한 모습은 결국 증생과 하나가 되어 그 아름과 함께하는 흡색간적 보살행의 세계를 지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생활속에서 실천 할 때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들이 날씨는 추워지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이런때 일수록 불교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돕는 실천행과 더불어 의식의 세계를 충만하게 해 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 것, 네 것이라는 분별을 여의고 사람들이 잡아야 할 삶의 방향이나 영원히 함께 공존하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생존하는 삶을 살아갈려면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삼계(三界, 육계, 색계, 무색계)의 대도사인 부처님은 이땅에 오신것도 아니요 안오신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육계(欲界)의 증생들 앞에 화려한 것은 생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 생사가 틀이 아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않는 사바세계 불자들을 제도하고자 이곳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상(天上)은 물론, 지옥계(地獄界)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구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삼계를 나누어 차별하여 보시지 않는것입니다.

**의식세계 충만하게 가꿔야**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불교는 이제 대승행을 해야합니다. 즉 사회에 환원하는 불교 ‘원공법계제중생(願共法界諸衆生, 모든 중생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 나와 남이 다 함께 부처를 이룸지어다)’를 지향해야 합니다.

나와 남이 함께 부처의 길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자리 그 자리가 곧 불국토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誰知王舍一輪月(수지왕사일륜월)이요 萬古光明長不滅(만고광명장불멸)이로다.

부처님이 계시던 왕사성의 동그런 달이 만고에 꺼지지 않는 광명인 것을 알겠는가

부처님은 왕사성에서 성도해 모든 중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그 빛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부대중들이 이 진리의 빛을 갖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합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철저한 지계·수행으로 일평생

### 11월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추대

**혜초 스님은** 11월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혜초 스님은 평생을 철저한 지계와 수행, 그리고 효행으로 일관해와 태고종 스님들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다.

조계종 비구 대처 분규 당시, 은사인 前 宗正 덕암 스님을 따라 비구의 몸으로 태고종에 남은 혜초 스님은 평생 돈을 만지지 않고, 대중들과 발우공양을 하는 등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새벽 2시면 일어나는 스님은 찬물 더운물 가리지 않고 목욕을 한다든 금강경, 원각경 보안장, 법화경 약장계, 화엄경

약장계를 차례로 독송한 후에 도량석 목탁이 울려 퍼지면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진 철전을 시작으로 나한전, 원통전 불조전, 조사전, 지장전을 모두 둘러 참배한 후 대웅전에서 대중들과 아침예불을 올린다.

낮에는 참선과 독서, 포행 등으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

스님은 지난해 6월 중정에 추대된후 9월부터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 대중들과 함께 적묵당에서 아침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1932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난 혜초 스님은 14세되던 45년 진양 청곡사에서 양택(良澤)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53년 해인사에서 인곡(仁谷)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불교전문강원과 해인대학원(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60년 현 태고종 종정인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 태고종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등을 거쳐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혜초 스님



## 주경 스님의 스님이야기

### 성해 스님

도반과 지인들 중에 제주도 출신들이 몇 있다. 제주도라는 지역 자체가 육지에서 멀리 툭 떨어진 특수성을 가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내가 아는 제주도 사람들은 제각기 특별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다. 어딘가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성해 스님이 있다.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해인강원에서다.

해인강원은 100여명의 대중이 수행생활을 하는 까닭에 대중화합이 중요했다. 대중화합은 스님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임과 명칭도 다양했는데, 당시 해인강원은 다른 곳에는 없는 특이한 소임이 있었다. 산문출입이 제한된 스님들의 필수품을 구입해주는 ‘마음시자’, ‘법당의 목

문을이다.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 전하는 말중에 ‘땀나게 울려라 하면 빌어먹는다’고 하여 적당한 선에서 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해 스님은 달랐다. ‘빌어먹는 것은 출가인의 본분사인데, 그 말은 땀나게 일해야 중노릇 잘 하게 된다는 말’이라며 앞장서 일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김장울력이나 화단조성 등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늘 앞장서는 것은 물론, 몇 사람 목 일을 하고 뒷정리까지 도맡았다.

90년대 초반 해인강원에도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학인들 사이에서 컴퓨터 열풍이 불어왔다. 컴퓨터 수업이 정규 교과목에 채택이 되었고, 워드프로세서와 통신 등 다들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성해 스님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스님들이 수행과 공부에 집중해야지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따라가면 스님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속가 공부에 더이상 마음을 두고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가불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림·문병성

## 힘 쓰는 일 있을때 늘 앞장 ‘울력대장’ 별명 잘 어울려

그래서 강원을 마치고 바로 장경각 천일기도를 지원해서 기도정전에 들터니 3년기도를 회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도의 종강소임을 맡았다. 평소 글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던데도 기도를 하며 내면의 변화를 가진 모양이었다. 한 시간 강의를 위해 몇 배 시간을 공부 한다면 툭툭하게 웃는 성해 스님의 방에는 최신형 컴퓨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극구 컴퓨터 사용을 거부하던데 어떤 일이냐고 물으니 필요해서 사 용하게 되었다며 이왕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스님들은 누구나 고집스런 면이 있고 그 고집을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아가는 데, 때로 그 고집을 버리는 것 또한 수행자 진면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성해 스님의 변화는 현재의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충실하고 때로 자신의 주장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과단성마저 보여주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 가을, 몇 명의 도반이 서산의 우리 절에 다녀갔다. 여전히 수수하고 털털한 성해 스님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리저리 도량을 둘러보고는 일거리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도와줄까 하 며 던지시 울력대장 품새를 드러냈다.

서울에서 소임을 접고 다시 산사로 내려와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거리에 하나씩 손을 대고 있다. 마당구석의 나무토막들도 치우고, 창고를 정리하고 관둘대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눈에 걸리는 일거리가 줄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자주 ‘울력대장’ 성해 스님을 떠올린다. ■서산 부석사 주지

탁을 치는 ‘목력대장’, 1, 2학년에도 해당하는 처문, 사집된 스님들이 생활하는 ‘현당’의 대 소사를 책임지는 ‘현당대장’ 등 산사의 스님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회한한 소임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식 소임에는 없지만 스님들 특성에 따라 붙여지는 별칭도 있었는데, 성해 스님에게는 늘 ‘울력대장’이라는 별명이 붙곤 했다. 산사에서 특히 대중처소에서 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중공동의 일을 뜻한다. 개인의 사정과 일에 우선하여 대중이 다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울력이다. 오죽했으면 ‘울력목탁이 울리면 누웠던 송장도 벌떡 일어나서 나온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다른 때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킴엔 드러나지 않던 성해 스님이 울력시간에는 누구보다 두드러지고 빛이 나곤 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 때에는 다른 스님들보다 훨씬 긴 빗자루- 보통 빗자루에 자루를 덧대어 길게 만든-를 들고 앞에서 쓱쓱 쓸어나가면 그 넓에는 마당이 순식간에 흰해지는데 그 넘치는 기운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울력이 대중스님들이 절대로 빠지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인지 하지만 그렇다고 뛰이 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지는 않는 것이 일종의 불

**고객의 행복만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둥성 성지 순례 5박 6일 / 매주 수·금요일 출발**  
여행경비: ₩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일차	도시명	교통편	순례일정
제1일	인천	화동페리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 인천항 출발, 선내 휴식
제2일	청주	전용버스	08시 석도항 도착 / 입국 수속 후 청주로 이동 불교 문화 유산이 잘 보관된 '청주 박물관' 관람 "탄산석굴" 참배후 치맥으로 이동 호텔 휴식
제3일	치박	전용버스	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영암사"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창건하신 "보조사" 순례 케플카 이용 태산 등정 후 호텔 휴식
제4일	태산	전용버스	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齒를 모신 "보광사"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광 호텔 휴식
제5일	유방	전용버스	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적선법화원"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18시 출항,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
제6일	인천		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

**여행조건**

1. 국제선비료, 현지 차량, 입장료, 식비, 중국비자, 현지 가이드 기사 및 등재 비용 포함(개인 경비만 제외)
2.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
3. 출발은 10명이상 가능
4. 10명이상 단체는 타케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더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지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하고있는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 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